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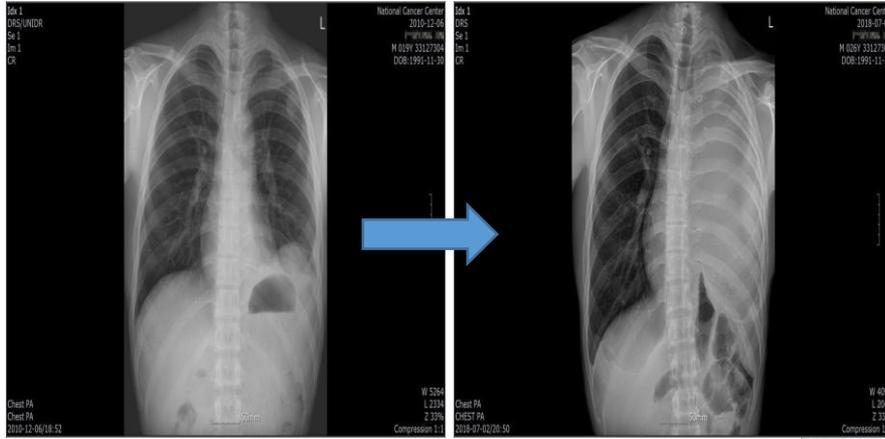
석면 기록관

Archive of Asbestos problems in Korea

제안합니다

이성진, 악성중피종 석면암환자

자기소개: 악석중피종 석면암환자 이성진



수술 전 후 X-ray 사진

2019년 7월3일
석면피해자 증언대회



목 차

-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방안
- 프로그램
-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 일정
- 기타
 - 참고사례;
 - 일본 센난 석면기록관, 일본 미나마타시 박물관

배경 및 필요성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발암물질(Group1)로서 석면에 노출된 후 10~5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에 악성중피종암, 석면폐암, 후두암,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암이나 일종의 진폐증과 같은 석면폐증이 발병하는데 모두 완치가 불가능하고 예후가 매우 안좋아 악성중피종의 경우 발병후 1-2년내에 대부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석면을 사용했다가 발암물질임이 밝혀지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해 현재 60여개나라에서 사용을 중단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홍콩 등에서 사용을 중단했지만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대부분 나라들이 석면을 사용중이고 전세계 석면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한국은 200여만톤의 석면을 수입했고,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사용한 석면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배경 및 필요성

- 2008년에 발족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주도한 전국 캠페인을 통해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중이다.
- 2021년3월까지 10년3개월간 모두5,002명이 환경성 석면피해노출 피해자로 인정되어 구제금을 지원받았다. 이 중 35%인 1,758명이 사망했는데, 919명은 사망후에 구제신청되었고, 839명은 구제인정시 생존했으나 이후 사망한 경우들이다. 구제인정자 10명중 3~4명이 사망한 셈이다.
- 참고로 직업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자는 2011년부터 2020년11월까지 모두 449명이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되었다.
- 또 석면관리기본계획, 석면함유제품, 자연발생석면, 건축물석면관리, 석면해체사업작관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부터 시행중이다.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은 충남 홍성 광천이 대표적인 석면광산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석면피해구제 인정자가 발생하는 곳이다. 지표면에 발달하는 석면광맥의 지형적 특성때문에 1940년대 일제에 의해 충남지역에서 수십개의 석면광산이 개발되었고 이후 1980년대초까지 가동되다가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어 주민들이 고농도의 석면오염 환경에 오랫동안 거주해왔다.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3월까지의 석면피해구제인정자 5,002명중 38%인 1,902명이 충남주민들이다.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할때 경기도, 서울 부산 등보다 훨씬 많은 석면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인정자중 석면폐증이 2,976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다.

배경 및 필요성

- 한 예로, 1943년생인 정지열씨는 광천 석면광산으로부터 200미터의 인근에서 태어나 17년간 석면오염 환경에서 거주했고 1년간 석면광산일을 한적이 있다. 그는 2008년에 석면폐2급을 진단받았고 7년뒤인 2015년에는 석면폐1급으로 나빠졌다가 다시 4년뒤인 2019년 7월에 석면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다. 충남 홍성, 예산, 보령, 청양 등에는 정지열씨와 같은 석면피해자들이 많다.

배경 및 필요성

- 2009-2014년 동안 광해관리공단에서 이 지역의 석면광산을 복원하고 오염 토양을 정화했지만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석면광산의 지질, 지형학적 특성상 지표면 가까이 광맥이 발달해 논밭농사일, 건축, 도로공사 등의 토지이용에서도 석면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지역에서의 석면문제와 피해에 대한 일상적인 안내와 교육홍보 및 경고가 필요하다.
- 석면문제는 2005년경부터 15년간 한국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여러 석면문제를 적극적으로 사회의제화하고 피해구제법 제정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문제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사례로서 잘 기록될 필요가 있다.

□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현황

(‘21. 3. 31. 기준,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소계	1급	2급	3급	
합계	석면피해	4,083	561	587	2,931	259	959	1,713	4
	특별유족	919	617	257	45	18	11	16	0
	소계	5,002	1,178	844	2,976	277	970	1,729	4

□ 지자체별 인정자 현황(누계)

(*21. 3.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인정							
	건수	비율	소계	악성 종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소계	악성 종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계	5,002	100.0%	4,083	561	587	2,931			4	919	617	257	45			0
						259	959	1,713					18	11	16	
서울	554	11.1%	405	130	55	219			1	149	121	24	4			0
						20	79	120					3	0	1	
부산	763	15.3%	650	50	126	474			0	113	43	62	8			0
						52	200	222					7	0	1	
대구	90	1.8%	60	23	30	7			0	30	21	8	1			0
						3	2	2					1	0	0	
인천	146	2.9%	99	28	13	58			0	47	40	7	0			0
						5	18	35					0	0	0	
광주	33	0.7%	22	17	3	2			0	11	8	3	0			0
						0	0	2					0	0	0	
대전	82	1.6%	53	20	4	29			0	29	23	6	0			0
						2	9	18					0	0	0	
울산	55	1.1%	30	12	7	11			0	25	18	6	1			0
						1	5	5					1	0	0	
경기	731	14.6%	558	115	74	369			0	173	141	28	4			0
						28	103	238					2	0	2	
강원	53	1.1%	29	16	3	10			0	24	20	4	0			0
						2	3	5					0	0	0	
충북	138	2.8%	110	19	16	75			0	28	24	3	1			0
						10	19	46					1	0	0	
충남	1,902	38.0%	1,775	34	189	1,549			3	127	43	62	22			0
						115	462	972					2	8	12	
전북	55	1.1%	32	17	3	12			0	23	17	6	0			0
						2	6	4					0	0	0	
전남	68	1.4%	43	19	4	20			0	25	20	5	0			0
						3	9	8					0	0	0	
경북	107	2.1%	68	18	26	24			0	39	30	9	0			0
						4	12	8					0	0	0	
경남	206	4.1%	140	40	31	69			0	66	40	23	3			0
						12	31	26					0	3	0	
제주	15	0.3%	7	3	3	1			0	8	7	1	0			0
						0	1	0					0	0	0	
세종	4	0.1%	2	0	0	2			0	2	1	0	1			0
						0	0	2					1	0	0	

배경 및 필요성(요약)

- **환경성 석면피해 급증, 향후 30-40년간 지속 예상**
 - 2011년 구제법 시행이래 계속 늘어남, 2019년 726명으로 최대, 10년3개월간 5,002명
 - 학교, 재건축/재개발, 슬레이트, 각종 건물 등에서의 석면제품문제 지속
 - 반면 직업성 산재인정자는 2011년부터 2020년11월까지 449명에 불과함.
- **충남지역 석면피해가 전체의 38%로 최다,**
 - 특히 석면폐는 전체의 60%임, 전세계 환경성 석면폐 핫스팟(hot spot)지역,
 - 폐석면광산이 집중됨; 홍성, 보령, 예산, 청양 등
 - 아시아 최대 석면광산, 일제시대 개발의 역사,
- **자연석면(NOA)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충남지역의 비중 높음.**
 - 석면사용이 금지되고, 기존 석면제품문제가 해결되어도 자연석면문제는 계속됨,
- **대표적인 환경문제이지만, 사회운동의 주도로 해결되고 있는 사례,**
- **석면피해자들의 목소리; 피해지원활동에 앞장서온 정지열 선생이 석면폐(2->1)에서 폐암으로 악화되어, 상징적인 기록관의 필요성 대두됨,**
- **아시아지역의 석면사용 지속되고 있어, 석면위험없는 아시아공동체 지향,**
- **전국순회 등을 통해 석면추방운동을 확대해나가는 동력,**

석면 기록관 추진 프로그램:

1. 충남 석면문제 기록관 필요성 홍보물 제작,
2. 기록관 필요성을 제기하는 현장방문 및 토론회,
3. 기록관 전시물품 수집 및 이미지 제작,
4. 기록관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진 등 전시회,

기록관 내용

- 석면광산, 석면제품 등에 관한 기록물 수집 전시,
- 석면의 피해에 관한 기록물,
- 석면문제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환경안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화,
- 석면피해자 및 지역주민의 증언기록, 순회전시때 해설자로서의 역할,
- 관련분야; 환경보건학/의학, 지질광물학, 문화인류학, 사회운동 등

석면기록관 전시물 기증받습니다

- 필요시 소정의 사례를 합니다.
- 언론사와 공동캠페인
- 기증사례;
 - 석면광물/원석,
 - 석면실짜는 물레,
 - 석면제품,
 - 석면광산 당시 사진, 광산채굴도구, 광산봉급명세서,
 - 피해인정자 의료기록, 사진,
 - 조사보고서, 언론보도
- 보관 및 전시;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추진방안

- 방안1; 독립적인 보관 및 전시 공간 확보,
 - 자체모금,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사업화
- 방안2; 기존의 관련 시설물 활용 (홍성/광천 문화관 등)
- 방안3;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등 관련단체의 공간에 분산보관 및 전시,
- 방안4; 기타

추진과정 및 일정

- 2020년
 - 2월 준비모임
- 2021년
 - 4~5월; 준비모임 및 추진위원회(준) 발족
 - 4~7월; 충남도청 미팅 등 관계기관 협의
 - 5~10월; 추진위원회 1차 활동
 - ‘석면기록관 전시물 기증받습니다’ 캠페인 등
 - 11월~2022년4월; 추진위원회 2차 활동
- 2022년
 - 5~7월 개관

충남 석면문제 기록관 추진사업 참여인사

- 석면피해자 및 주민대표
 - 홍성광천/보령/청양/예산 등
 -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 충남지역 시민사회
 -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등
 - 충남시민단체협의회
- 충남지역 인사
 - 충청남도청/홍성군/보령등 등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및 전문가
 -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예용; 환경보건학 박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스텔라 아키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산업보건활동가
 - 추가







광천 석면광산의 유래

본 광산은 1938년부터 약 40여년간에 걸쳐 생산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면광산이며 지역사회와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광산이다.

1. 연혁

- 1938년 : 장수인태양 광업권 설정 등록
- 1940년 : 국영스래-트리 광업권 이전 등록
- 1942년 : 국영석면광업권 현지법인 설립
- 1953년 : 채광인가 취득
- 1962년 : 국유재산 편입(인미협정 권리 귀속)
- 1962년 : 개인 매매 및 광천석면개발권 설립
- 1986년 : 채광종료

2. 광업권 표시

- 1) 등록번호 : 제 16527호
- 2) 지적번호 : 흥성지적 89호, 90호
- 3) 광종 : 석면, 사문석
- 4) 광산유명 : 노천 및 경내채굴
- 5) 광구소재지 : 흥남 흥성군 광천읍 상정리.
은이면 화봉리.

3. 생산실적

- 석면 : 약 202,835톤
- 사문석 : 약 649톤

4. 지질 광상

1) 지질

선캄브리아기의 율연리층과 이를 관입한 덕장리편마암 및 백악기의 장곡섬록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율연리층에는 각섬석편마암과 흑운모-각섬석편암으로 구성되며, 이중에 사문암, 사문암질편암이 침재되어 있다.

2) 광상

사문암대의 대체적인 주방향으로 배태되는 수직조의 세역상 온석면 광상으로 석면을 포함한 사문암대의 산출상태는 대체로 편도상 잔유물과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대의 주향은 N20~30° 경사는 거의 수직의 형태임.

석면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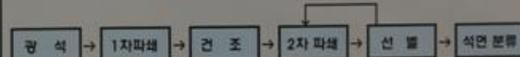
- 석면은 실리카, 마그네슘, 알루미늄 주요 구성원 천연광물질임
- 사문석(Serpentine)과 각섬석(Amphibole) 계열로 구분

석면의 종류와 특성

-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트레몰라이트, 연소틸라이트, 액티노라이트 6종 구분
-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조 가능한 물질
- 내열성,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 내부식성, 흡음이 뛰어나
- 업종별 석면사용 :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

석면섬유는 어떻게 만드는가?

- 석면은 사문석과 각섬석지대에 마그마 활동으로 인한 뜨거운 물(열수)의 유입으로 광물이 변형되어 섬유화 형태로 생성
- 생성된 석면섬유 광물을 채굴하고 그 석면 원석에서 석면을 분리, 건조, 파쇄, 선별과정을 거쳐 석면원재료로 생산







1930년대 일제에 의해
개발 가동되던 광천광산
현장

2009년10월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광천광산



2019년 복원후
태양광이 설치된
광천광산터



2009년1월 폐광 및 방치된
광천광산 지하현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KO (Ban Asbestos Network Korea)

석면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전국석면피해지원기동팀의 충남지역편차
석면피해민지원신고센터 010-6734-7783 (한지영)

45

참고사례

- 일본 센난 석면의집
- 일본 미나마타시자료관

참고; 일본 센난의 석면기록관 사례

- 일본 센난지역은 오사카 인근의 작은 시인데 100년동안 일본내의 중소규모 석면방직산업이 존재해온 곳이다. 센난시와 한난시에만 200여개의 크고 작은 석면방직공장이 가동되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특징으로는 2차대전때 일본으로 자발적으로 건너갔거나 징용되어 갔던 한국인들이 전후에 직업을 찾아서 센난지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노동자로 혹은 소규모 공장의 운영자로 살다가 석면에 노출되어 1세 혹은 2세가 석면질환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
- 센난에서는 2005년경부터 석면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일본정부의 안전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했고 10년후인 2015년에 부분 승소했다.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석면정책 실패에 대한 법적 승소는 첫사례였다. 센난 석면피해대책위는 국가책임인정과 석면피해운동을 기록하기 위해 2016년 '센난석면의 비'를 세웠고, 2019년4월에는 센난지역에서 석면피해자를 진단하고 치료했던 의사 카지모토 선생의 유족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석면피해기록관 <아뜨리에 센난 석면의 관>을 만들었다.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지난 10년간 일본의 석면추방단체 및 피해자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상호 필요한 정보와 운동의 경험을 나누었고, 아시아 전역의 석면추방운동에도 공동으로 앞장서 왔다.

참고; 일본 오사카 센난의 석면기록관





센난석면기록관
<아프리에 석면의관>
Sennan Asbestos House
를 건립한 분,
석면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사 카지모토
아들



アトリエ南石綿の館

開館日: 4月20日(土)

11:30 AM ~ 12:30

まで
〈セミナーの為〉

4/21(日)

10:00 AM

4/27(土)

16: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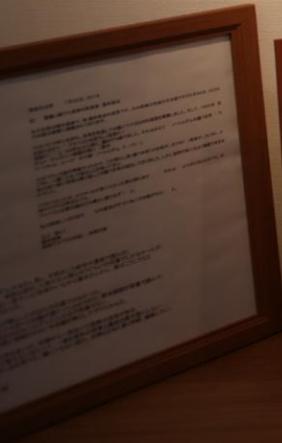
開館致します。

入口





石師研究會



泉南アスベスト国賠訴訟原告団

日本のアスベスト被害の原点

国は知ってた、できた、でも何もしなかった

**大阪泉南地域の
アスベスト国家賠償請求**

**公正判決30万署名に
あなたもご協力を**

工場跡には置かれたアスベスト、こんな公害がまた起こる



大阪市立大学名誉教授
遊賀大元 元学長
宮本憲一 さん

アスベスト被害は史上最大の産業公害です。被害禁止を遅らせ、被害を拡大し、責任をいまだに背負っていかしなげればなりません。被害者や国民の責務です。

大阪泉南地域のアスベスト
国賠訴訟を前たせる会

大阪府泉南郡六花595
phone: 075-561-1361 fax: 075-561-0811

www.asbestos-osaka.sakura.ne.jp/kataseru/ ネット署名もあります!

1985年(昭和60年)10月

宮本先生に送った親本文書(例4)

アスベスト被害の原点 公正判決30万署名にあなたもご協力を

1) 国は知ってた、できた、でも何もしなかった

2) 大阪泉南地域のアスベスト国家賠償請求

3) 公正判決30万署名にあなたもご協力を

4) 大阪府泉南郡六花595

5) 電話: 075-561-1361

6) FAX: 075-561-0811

7) 大阪府泉南郡六花595

8) 大阪府泉南郡六花595

9) 大阪府泉南郡六花595

10) 大阪府泉南郡六花595

11) 大阪府泉南郡六花595

12) 大阪府泉南郡六花595

13) 大阪府泉南郡六花595

14) 大阪府泉南郡六花595

15) 大阪府泉南郡六花595

16) 大阪府泉南郡六花595

17) 大阪府泉南郡六花595

18) 大阪府泉南郡六花595

19) 大阪府泉南郡六花595

20) 大阪府泉南郡六花595

**「アスベスト被害の原点」から
国の責任を問う**

国は知ってた、できた、でも何もしなかった

大阪府泉南郡六花595

電話: 075-561-1361

FAX: 075-561-0811

www.asbestos-osaka.sakura.ne.jp/kataseru/



VS 泉南石綿村
二自由にお取りください

ニッポン国
VS
泉南石綿村
SENNAN ASBESTOS DISASTER

In Japan a Third Hand
For Chrysotile Makers

フジの巻
(既訂数)
特別価格
1冊 700円
※ 既訂数に追加
の注文は500円
からです!

1冊 700円

DI-KAZIMOTO 手巻CL1
アト江刺繍記念巻物
1冊 500円

裁判を闘い抜いた原告たち

青木善四郎	勝賀瀬喜代子	春本利子
赤松四郎	白谷國雄	春本元洙
石川チウ子	新宮均	原口守直
磯田忍み子	高山良子	古川昭子
和泉利雄	辻野久男	藤原ミヨコ
井上國雄	寺西千世子	松本玉子
植野幸代	戸口義弘	前川清
江城正一	徳永英士	松島正芳
榎谷喜美子	中田秀子	松本ケイ子
岡田春美	中田敏夫	松山尋子
岡田陽子	南條霧鳥	松本幸子
岡本郡夫	南條正富	南寛三
亀岡三郎	仲谷親幸	満田健男
川崎武雄	西村東子	養田努
木下お栄	瀬占マス	水本美八
岸志富	瀬占吉美	萩内
湖山寿啓	原まゆみ	萩
佐藤健一	原モツ	
澤井石正	畠山幸子	
迫園敬吉	畠山重信	

御祝

孫一同

家



を闘い抜いた原告たち

勝賀瀬 喜代子 春本 利子
 白谷 國雄 春本 元沫
 新宮 均 原口 守直
 高山 貞子 古川 昭子







2019년 4월20일
석면기록관 개막식
센난시장,
한난시장이 모두
참석했다.



アトリエ 泉南石綿の館

Sennan Asbestos House

Since 2019

梶本政治医師由緒

梶本政治先生は1953年旧信達町牧野（現泉南市）のこの場所で、小さな内科医院を開業した。以来80才の没年まで、町医者としてこの地の医療に携わった。

先生は、石綿紡織業に由来する健康被害から目をそらさず、その危険性に警鐘を鳴らしつづけた。当時盛んだった石綿は、泉南地域の重要な地場産業だった。

欧米の文献を読みこなし、そこで得た知見を各地の医療機関、保健所、労基署、食品・化学工場、自治体、研究者に送りつけ、警告を発した。先生がB4紙に綴り、妻タミエと子供たちがかり版印刷を手伝った。膨大な手書きの文書が今も残っている。

当時外国の文献は高価だった。医院収入のかんりの部分を取り寄せ費用を含む資料代に費やされ、生活は楽でなかったと聞く。旧宅の畳の部屋は本の重みでゆがんでいた。

先生の行動は研究や医療にとまらなかつた。工場労働者や近隣住民に多発した石綿肺と肺がん。その悲惨さを誰よりもよく知る先生は、足繁く石綿工場を訪ね、直接工場主に危険性を訴えた。

それは防塵設備の強化だけでなく、時に操業を止めるよう迫る内容だったため、経営者の強い反発を受けた。当然に工場内で役所ではたまたRの現場で、数々のトラブルを引き起こすこととなった。

寡黙で人付き合いは苦手だった。妻人吉人扱いされることもあった。しかし先生の存在は、いま石綿被害根絶のために闘う人々を限りなく励ます。

と同時に、先生がこの地の住民の一人であったという事実が、被害を知らぬがらここで生き、時に利を得、沈黙したわれわれを、からくも免罪してくれているように思う。

梶本政治の晩年に先生の色を帯びて作られた。ありし日の先生の姿をなつかしみつつ、この一頁を掲げた。

2019年11月28日 泉南アースベストの会 有る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